

‘빛의 궤도’가 그려낸 감각의 흐름…“광주를 기억하다”

G.MAP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 쇼케이스 리뷰

무당 대신한 기계·자연 채집 사운드 설치 등 10팀 작업 공개…실험적 창작 성과 ‘한자리’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랩’(lab)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결과물을 관객 앞에 내놓았다.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 쇼케이스가 오는 21일까지 G.MAP 제2·3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시 키워드는 ‘빛의 궤도’다. 여기서 빛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기억과 감정, 기술과 환경이 교차하는 감각의 흐름으로 제시된다.

작품들은 광주의 자연과 5·18의 역사, 혹은 도시를 둘러싼 감각의 층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



섬작 'Threshold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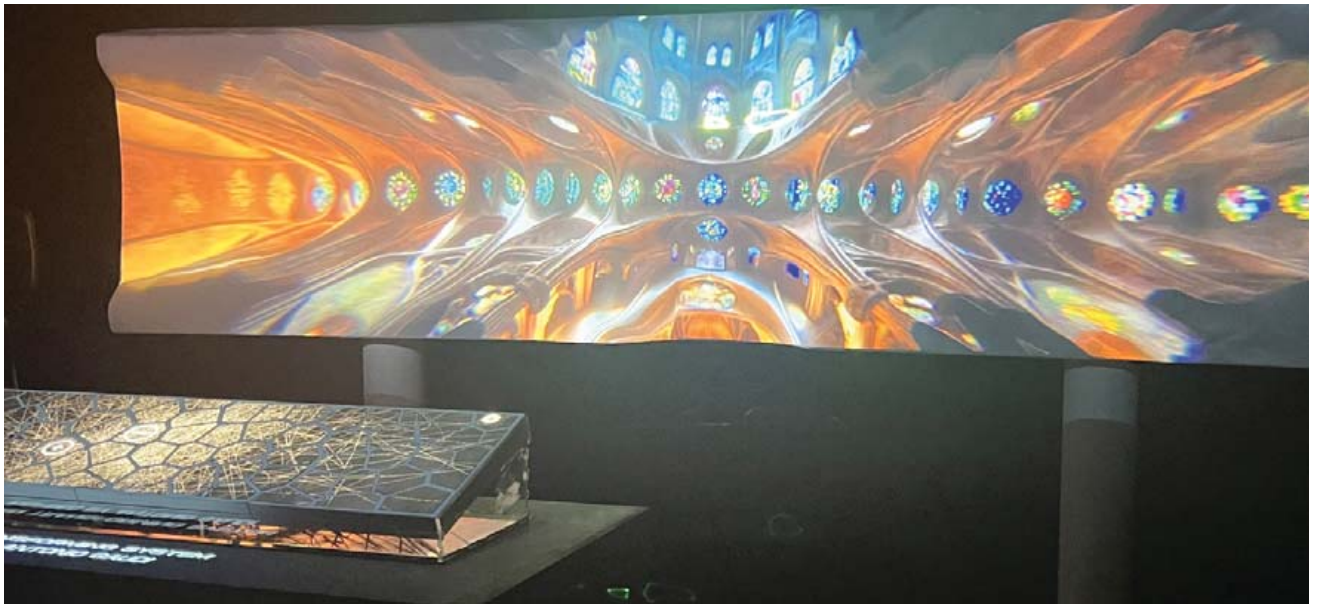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작가 아리프 부디만(Arief Budiman)의 ‘The Birth of Togetherness’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5·18과 관련된 비극이 서려있는 장소에서 사운드를 채집해 기억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특정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마주하게 된다.

섬광 팀은 ‘물’과 ‘빛’을 결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장 중앙에는 수조가 놓여 있고, 관객은 수중 마이크를 직접 들어 올려 물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다. 물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은 스피커와 조명, 영상으로 확장되며 공간 전체를 채운다. 관객이 작품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와 빛의 반응도 달라져, ‘듣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소광단의 ‘무등 굿 1.0’은 강한 시각적 인상을 남긴 작품 중 하나다. 관객이 입구에서 자신의 불안과 바람을 입력하면, 그 신호가 전송돼 안쪽에서 ‘개인에게 맞춤형된 굿’이 진행되는



소광단작 '무등 굿 1.0'



TEAM XIST작 'Urban Transforming System'

구조다. 당산나무를 대신해 기계팔이 자리해 있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굿의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근미래적 무당의 형태를 보여준다.

전통의 장소성을 디지털로 번역한 시도도 눈에 띈다. A.C.E의 ‘풍영정- 시대를 읊으며 바람을 품다’는 풍영정을 실감형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했다. 죽자 형식의 이미지 위로 물고 기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 정자와 자연의 미감을 펼쳐 보인다.

헥스넛(Hex Nut)의 작업 ‘파편의 숲’을 경험하기 위해선 관객이 사운드 설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공중에 배치된 8채널 스피커 사이를 지나며 광주와 고흥, 강화도 등에서 채집한 소리들이 교차하는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밖에도 관람객의 움직임과 터치가 실시간 시청각 변화로 이어지는 팀 엑시스트(TEAM XIST)의 작업, 광주에서 실제 운행중인 518 버스의 실시간 데이터와 연결해 감각적인 추모 시스템을 구현한 Odd Ordo의 작품 등 10팀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 전반을 이룬다.

김하경 G.MAP 센터장은 “프로젝트팀 결과물들은 ACC와 송정역, 광주시청 미디어아트 폭포, G.MAP 영상벽 등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라며 “지역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교류를 강화해 광주가 세계 디지털예술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나랏, ‘찰나’로 만나는 ‘문턱 2025’ 피날레

오는 26일 광주보헤미안공연장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랏의 기획공연 ‘문턱 2025’가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보헤미안공연장에서 시즌 마지막 공연 ‘찰나’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올 시즌에 참여했던 전 예술인이 다시 모인다는 점에서는 피날레 성격을 띤다. 단순한 합동 공연이나 기존 레퍼토리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조합과 편곡, 공동 창작을 더한 올해 중 가장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공연에는 김단비(해금), 김영훈(건반), 김겨봉(일렉트릭기타), 장유진(피리), 김현무(소금), 최욱미(대금)가 참여해 ‘시절예찬’, ‘긴 소나기 내리고’, ‘소쇄한 그리움’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연말을 맞아 문턱 시리즈의 시그니처 이벤트였던 ‘원 프리 드링크’도 색다르게 운영된다.

지난 8월과 11월 공연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와인전문가가 다시 참여해 직접 만든 따뜻한 와인 음료 배소를 관객에게 제공한다. 예매 및 문의는 010-2872-3590. /최명진 기자

이강하미술관 기획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전국 순회전 ‘주목’

용인 다올갤러리에서 만나는 ‘집 그리고 또다른 장소들’

2024-2025 이강하미술관이 기획한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전시가 다양한 도시와 공간에서 순회전을 이어가고 있다.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을 주제로 한 순회전이 내년 2월15일까지 용인 다올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캐나다 웨스트 바핀 코어퍼레이티브와 한국 이강하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국제교류 프로젝트이자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전시활성화사업’ 순회 전시다.

캐나다 파빌리온 전시는 국내는 물론 국외 캐나다 토론토 현대미술축제 ‘뉴이블랑쉬’와 오타와 주캐나다한국문화원(KCC)에서도 열리며, 국가 간 다양하고 긴밀한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시에선 민족의 다양성과 전통적인 삶,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현대 예술의 공통점을 재해석해 담은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최초로 캐나다 북극 킵가이트를 다녀온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김철아·이조흠·주세웅 작가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는 킵가이트 아누이트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용인 다올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집 그리고 또다른 장소’ 전경.

이선 학예실장은 “지난 2년 간 국제교류 협력했던 전시가 올해는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공간으로 연결되고 확장돼 의미가 깊다”며 “북극의 환경, 동물, 인간의 삶, 전통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의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